

성남 금토동 일원 58만㎡ 부지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확정

무주택자 맞춤형주택 3400호 공급
핀테크 등 미래금융산업 일터 조성
“국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 준비”

성남시 금토동 일원 58만3,581㎡가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로 확정됐다.

경기도는 7일 국토교통부가 이날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제출한 ‘성남 금토(가칭, 제3판교) 공공주택지구’ 지정 신청서를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해 11월 제3판교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첫 번째 행정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부지 규모가 공식 확정됐다는 의미라고 도는 설명했다.

확정된 제3판교테크노밸리 부지는 제2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성남시 금토동 일원에 위치한다.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 구역으로 나뉘며 1구역이 6만7,910㎡, 2구역이 51만5,671㎡다. 도는 판교테크노밸리의 주차난과 대



경기도 제3판교테크노밸리 (금토지구) 조감도. /경기도

중교통 불편, 주거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3판교를 살터(주거)와 일터(일자리)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살터에는 젊은 층과 무주택자 등을 위한 맞춤형 주택 약 3,400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일터는 핀테크, 블록체인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금융산업이 들어설 혁신클러스터와 ICT 첨단산업이 입주할 융복합클러스터, 문화·근린생활시설의

근린클러스터 등 3개 구역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준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제3판교테크노밸리가 완료되는 2023년이면 판교 일대가 167만㎡ 규모 부지에 2,500여개의 첨단기업이 입주하는 세계적인 첨단산업클러스터가 될 것”이라며 “판교테크노밸리가 국내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전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이재준 고양시장, 사법행정편의 팔 걷어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촉구”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시민의 사법 행정편의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며 104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마련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7일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방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임에도 5개의 지방이 있는 서울시와의 차이를 꼬렷다.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해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오는 2019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 시장은 “104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



이재준 고양시장이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촉구하고 나선다. /고양시

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고양지원의 지방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기북부 중심 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무안공항 경유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 확정

2020년 착공·2025년 개통 목표
총 연장 259.9km·사업비 10.6兆



전남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이 확정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기본계획이 변경된 2단계 노선은 나주역에서 무안공항역을 거쳐 목포역으로 향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기본 계획을 완료하고 오는 2020년 착공해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송정 구간은 지난 2015년 개통했지만, 광주송정 이남 구간은 노선협의 실패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광주송정에서 목포까지는 기존 호남선을 이용해 고속열차가 운행 중이다. /전남 무안=김남경 기자 5555knj@

국토부는 광주송정역에서 나주 고막원 구간을 우선 고속화하고, 고막원~목포 구간은 신설 노선이 개통될 때까지 호남선을 계속 이용하기로 했다.

이에 충북 오송역에서 전남 목포로 이어지는 호남고속철도의 총 연장은 249.1km에서 259.9km로 늘어난다. 총 사업비는 8조3220억원에서 10조6049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 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호남고속철도 무안공항 경유노선을 결정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metroseoul.co.kr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 ‘표준단가’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부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면서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원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성남시장 시절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건설공사에서 품질이 문제된 적이 없으며 많은 건설사가 공사를 하겠다고 입찰했다”면서 강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행 행안부 예규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표준품셈은 품셈에서 제시한 수량(재료, 노무, 경비)에 단가를 곱하는 원가계산방식을 말하고, 표준시장단가는 이러한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포함)을 적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용해 완료한 공사에 계약단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산정한 직접공사비를 말한다.

따라서, 정해진 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하는 표준품셈보다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표준시장가격이 표준품셈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청에서 발주한 100억원 미만 공사는 1,661건에 공사비는 2,098억원이었다”면서 “표준품셈이 아니라 표준시장단가로 공사에정가를 산출했다면 적게는 81억(3.9%)에서 많게는 211억(10.1%)까지 공사비를 아낄 수 있었는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성남시

자전거도로 킥보드 단속

성남시는 탄천 자전거도로 50.8km 구간에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전동식 바퀴가 달린 이동수단을 타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땐 범칙금 4만원을 물어야 한다.

이는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도로교통법 13조(2011.6.8)’를 따른다. 관련법은 전동 휠, 전동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전기스쿠터 등의 전동식 이동수단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한다. 자전거가 아닌, 차량으로 간주해 자전거 도로, 인도, 공원 등에서 운행할 수 없다.

만 16세 이상의 면허 소지자에 한해 차도 오른쪽 끝에서만 탈 수 있다. 무면허일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을, 차도가 아닌 곳에서 운행하면 범칙금(4만원)을 경찰서에 내야 한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전거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타다가 사고를 낼 경우 역시 차량으로 간주해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6월 27일부터 탄천 주요구간에 현수막을 걸어 홍보한다. /경기=김승열 기자



“시원한 山寺서 무더위 날리세요”

광주 북구 원효사 체험 프로그램 진행

사상 초유의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도심에서 가까운 전통 산사(山寺)를 찾아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광주 북구는 오는 18일부터 10월까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큰 무등산의 천년 고찰 원효사에서 전통 산사(山寺)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전통 산사(山寺) 문화재 활용사업’

은 문화재청이 산사에서 계승되고 있는 인문학적인 정신유산을 대중화·세계화해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북구가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1900만원을 지원 받았다.

이에 북구는 ‘원효사, 무등산을 품다 II’를 주제로 무등산에 위치한 원효사를 중심으로 ‘체험 한마당’, ‘마당극 퍼포먼스’, ‘무등산 보물찾기 여행’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봉태영 기자 bcy2020@

인천중앙도서관

청소년 인문독서아카데미

인천중앙도서관(관장 양승옥)은 지역 주민들의 인문정신 고양 및 독서문화 증진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어린이 청소년 논픽션 큐레이션’을 주제로 인문독서아카데미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인문독서아카데미 공모사업에 선정된 프로그램으로, 고등학생 이상 인천 시민은 누구나 수강 가능하며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9일부터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그림책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 동



인천중앙도서관

화, 청소년소설, 논픽션 등 어린이 및 청소년 문학에 대한 탐색을 통해 좋은 책 선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됐다.

중앙도서관 담당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자기 계발과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